

## Asia

북아시아

North Asia

동아시아

East Asia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

중앙아시아

Central Asia

남아시아

Southern Asia

서남아시아

Southwest Asia

## America

남아메리카

South America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중앙아메리카

Central America

카리브 제도

Caribbean

라틴 아메리카

Latin America

앵글로아메리카

Anglo America

## Africa

동아프리카

East Africa

중앙아프리카

Central Africa

북아프리카

North Africa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서아프리카

West Africa

# Life in Cambodia

## Europe

동유럽

Eastern Europe

서유럽

West Europe

남유럽

Southern Europe

북유럽

Northern Europe

중앙유럽

Central Europe



## Oceania

오스트랄라시아

Australasia

멜라네시아

Melanesia

미크로네시아

Micronesia

폴리네시아

Polynesia

라온아띠 11기  
캄보디아 깐달 팀

# Contents.



- 001. 단원 소개
  - 002. 파견기관 소개
- 

- 003. 3월 전체 일정
  - 004. CD 활동
  - 005. YD 활동
- 

- 008. 일상 소개
  - 009. 문화 소개
  - 010. 개인 에세이
- 

- 011. 3월 총평
- 012. 3월 피드백

# 단원 소개



## 단원 소개



### 김강희 Sopheap

치명적인 리더, 외교관, 변호사,  
통역사, 오제준 보호자 & 법적  
대리인 & 대변인, 모순쟁이,  
문화 전도사, 1집 아이유,  
망고짜오(도둑), 차끄다으 홀릭



### 차효림 Arun

영원한 1인자, 의지의 한  
국인, 소신있는 신여성,  
타임키퍼, 팔찌장인,  
음 난 괜찮은데?(음식)



### 이태호 Dara

자웅동체(엄마+아빠),  
요리사, 태비게이션,  
태호징어, 서열 4위



### 오제준 Ponleu

4톤 트럭, 상남자, 물맨,  
설거지맨, 강희교 교주,  
분위기 메이커, 나방킬러,  
썸픈 뽀우마, 일 찾는 남자



### 모예은 Chenda

아이돌킬러, 레스토랑 오너,  
모사장, 가끔 총명해지는 여자,  
바지에 구멍 3개 남, 레깅스녀, 망고요정



កម្មវិធីអភិវឌ្ឍន៍យុវជន  
Youth Development Program

# 파견기관 소개



## 파견기관 소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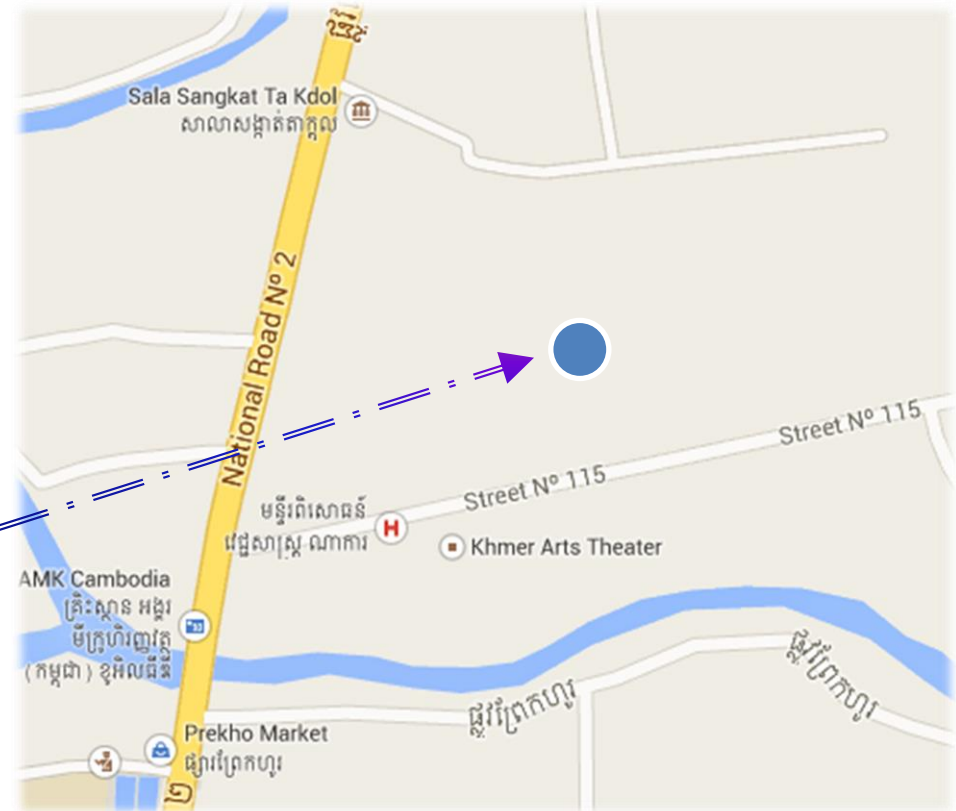
카리타스(Caritas)는 라틴어로 ‘사랑’, ‘애덕’, ‘자선’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복지, 긴급구호, 개발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전 세계 201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교황청 산하 카톨릭 국제기구입니다. 특히나 긴급구호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 파견기관 소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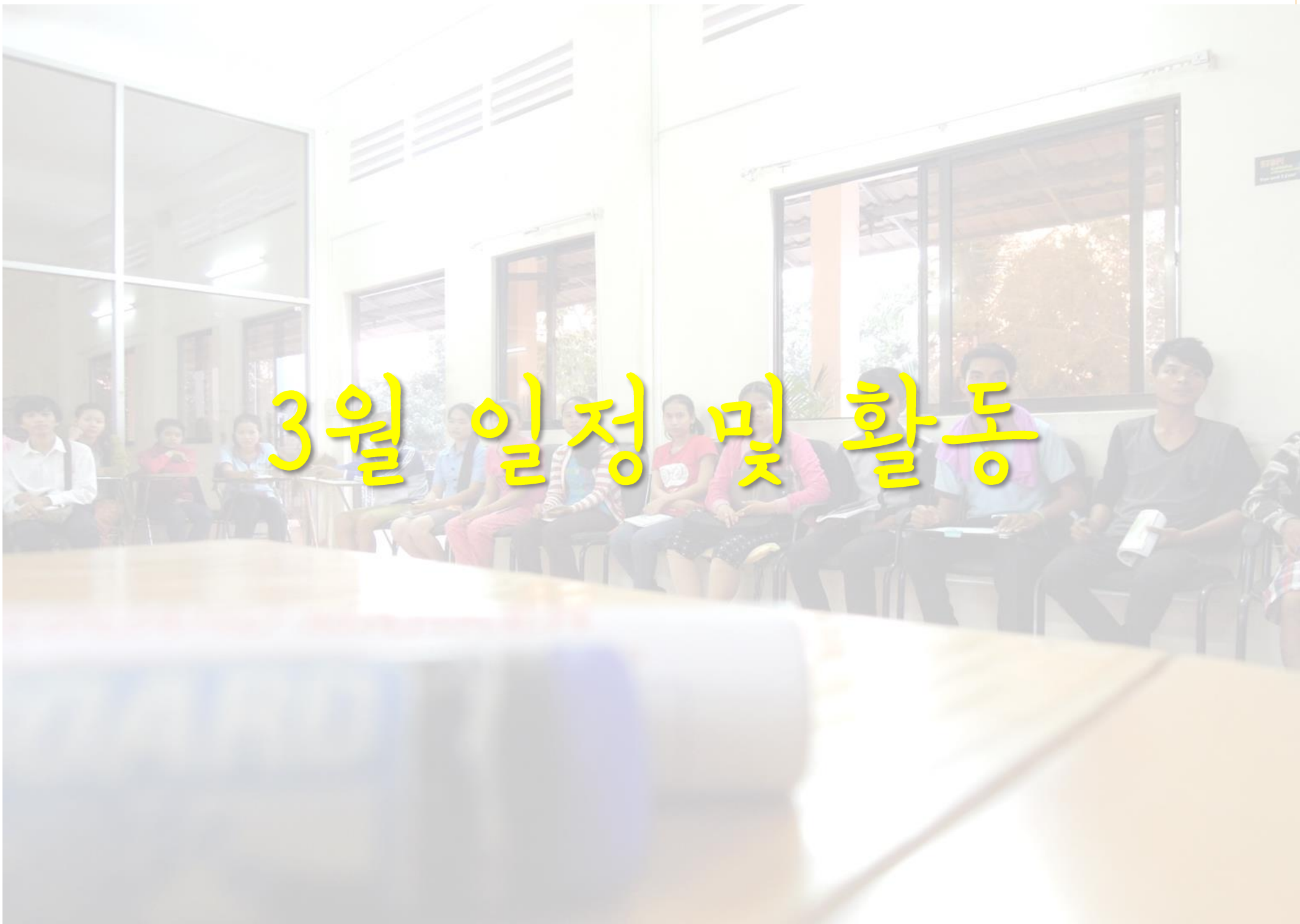


10기와 마찬가지로 11기도 캄보디아 깐달 주에 위치한 Caritas Cambodia-Kandal Office에서 3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5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3월 일정 및 활동





### 3월 전체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캄보디아 프놈펜 도착	7 깐달 오피스 첫 방문!	8 프놈펜 방문 (프싸 트마이...)
9	10 전체 staff 미팅	11 With Mr.Meng, Mrs. Phirum 미팅	12	13 CDP, YDP 스케줄 확정	14 YDP 활동 Announcement 작성/부착	15 프싸 브레호 장 보러 갔어요
16 프놈펜 방문 (강희 생일)	17 CDP chief 미팅	18 CDP Village 견학	19 KB 방문 !	20 Mr.Sokchea의 미술 수업 참가!	21	22 시하누크빌 (with 뽀냐)
23 시하누크빌 (제준 생일)	24 Korean class Orientation (Youth/Child)	25 English Class Orientation (Basic/Interme diate)	26 Korean Class	27 English Class 태호 생일	28 Korean Class	29 썸남 아들 돌잔치 참석
30 집 대청소 !	31 Korean Class					

## CDP 마을 견학 (1)



아띠는 CDP Staff 인 Mr. Samnang, Mr. Rossekdey씨와 Commune hall을 방문하여 President of Commune 이신 Mr. 헤이짠 씨와 Administration 이신 Mr. 어라이름 씨, Commune council 에 재직중이신 Mr. 먼 씨를 만나 아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CDP 마을 견학 (2)



또한 아디는 Taut Ma village  
뜨러꾼 재배농가와 돈사, Svay  
Prey village 돈사를 방문하여  
Pig raising 등 Kandal Caritas의  
CD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  
니다.



# Korean Class for Children

아띠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희, 제준, 예은 단원은 센터 근처 마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2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자음/모음부터  
한국 동요까지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YDP 활동 (2)



자기소개 중인 몬 썩케어 (5세,꿈:선생님)

자기소개 중인 반냐 로 (11세,꿈:의사)  
와 아띠에게 통역을 해주기 위해 귀  
기울여 듣고 있는 Mr.Thann



# Korean Class for Youth

효림, 태호 단원은 Youth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기의 한국어 수업으로 한국어 자음/모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올해 센터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 자음/모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 흥미가 많아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있으며, 자음/모음 수업 이후 자기 이름 쓰기 및 한국어 생활 회화 등의 수업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English Class for Youth(Basic)

유스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 또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asic 반은 제준, 태호, 예은 단원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일/월/숫자 등 가장 기본적인 표현부터 주어/관사 등 기초 문법과 필수 생활 회화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nglish Class for Youth(Intermediate)

Intermediate 반은 강의, 호림 단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읽고 말할 수 있는 유스 학생들을 수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별 표현/회화/단어와 함께 기초 문법(형식, 시제 등)을 수업 중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요청에 따라 한국 문화(TV프로그램, 노래 등)와 영어를 결합하여  
한국 문화 소개 및 각 상황별 회화(ex. 음식 주문 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Handicraft for Youth

4월 첫 주, 아띠들의 YDP 활동 주를 맞아 핸드크래프트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의 아이템은 '팔찌' 였구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특히 남학생)은 아띠들의 도움에 따라 예쁘게 만들었고,  
10기의 핸드크래프트 수업 덕분인지 아띠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학생도 있어  
도우미를 자처한 아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 Handicraft for Youth





# Sports Activity for Youth

아이들의 YDP 활동 주를 맞아 아이들은 유스 학생들과 함께 체육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해가 살짝 기운 낮 4시 쯤, 제준 단원과 태호 단원은 흰색 분필을 이용해 센터 운동장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유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고 8:8로 팀을 나누어 같이 '피구'를 하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피구가 끝난 후에는 유스 친구들이 캄보디아 놀이를 알려줘 미술 선생님이신 Mr.Sokchea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YDP 활동 (9)



규칙을 설명중인 제준, 태호 단원





# 일상 소개



# 우리끼리 프놈펜 나들이

3월 어느 주말, 강희 단원 생일을 맞이해서  
프놈펜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좋았지만 점심을 필리핀 음식 전문점에서 먹  
었다는..(캄보디아에서 필리핀 음식을ㅠㅠ)







## Miss. Panha 송별회ㅠㅠ

Kandal Caritas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던 Panha씨가 National Office로 발령이 나 작별의 파티를 가졌습니다.

Mr. Rossekdey씨의 신명 나는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었다능.. ㄹㅇ ㄹㅇ..!





## 시하누크빌(Shihanoukvile) 물놀이 다녀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National Office에서 근무중인 Panha와 Moniroth, 그리고 친구 Serey roth과 함께 시하누크빌(Shihanoukvile-Kampong Som)에 다녀왔습니다. 눈부신 백색 모래사장과 시원한 파도, 싱싱한 해물까지!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o^



## 일상 소개 (4)



해산물 배불리 먹고 해질녘까지 수영!  
With 이름 모를 할아버지와





## CD Staff 썸남 아들 돌잔치 !!

CD Staff인 썸남 아들(째뜨라)의 첫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아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신나게 춤추며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마을에서 열리는 파티에는 처음 초대받은 거라 아피들 모두 어떻게 차려 입고 가야 하는지, 가서 어떤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고민했지요.. 하지만! 일찍 프놈펜에 나가서 선물도 사고, 옷도 최대한 예쁘게 차려 입고 함께 간 스태프들, 썸남 가족들 등과 함께 잘 놀다 왔습니다 :)





## 일상 소개 (6)





## 아띠, 피자 시켜먹다..!

태호 단원 생일을 맞아 피자를 시켜먹기로 마음 먹은 아띠들!  
럭키마트에 갈 때마다 럭키마트 옆에 있는 피자컴퍼니를 보며,  
'언제 한 번 꼭 시켜 먹을 거야' 라는 굳은 각오를 드디어 실행하기로 결심!

하지만 배달원은 아띠들 숙소는 물론 까리타스 위치도 몰랐고...  
결국 늦은 밤, 센터를 찾은 아띠들은 유스들에게 도움을 받아  
주문한 지 50여 분 만에 겨우 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កម្ពុជា (កម្ពុជា) 文化 소개



# 캄보디아 파티 문화

캄보디아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저녁 동네에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죠. 파티가 열리면 호스트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먹을 거리를 준비해서 손님 맞이 채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나면 노래를 크게 틀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손바닥을 교대로 뒤집어가며 손가락을 꼬면서 몸을 전후좌우 왔다 갔다 움직이는 '으로암'을 추며 흥을 계속 이어갑니다. 최근엔 Pok Pun Na heh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세요) 라는 클럽 리믹스 음악이 매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 파고다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는 우리에게 불교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불교와는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이미지를 가지고 갔다가 캄보디아 절에 모셔진 팔이 여러 개 달린 힌두신상을 마주친다면 아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인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크메르인들의 힌두교와 융합된 불교는 '파고다' 라는 건축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출처 : 캄보디아 알기, 이광수)





# 문화 소개 (3)





# 캄보디아 음식





# 문화 소개 (5)



# 개인 에세이



# Sopheap

먼지바람과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 바나나에 돈을 꼬고 제사를 지내는 풍경. 맛과 향이 매우 강렬한 차 크다으. 거리 도처에 달려 있는 망고. 나보다 피부색이 조금 짙고 더 큰 눈을 가진 사람들. 레버가 없이 쭈그러앉아야 하는 변기. 외국인에게 호기심이 많은 센터 학생들.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강한 더위와 마찬가지로 적응이 안 되는 '싸앗(예쁘다)-피부색이 하얗다는 이유로-'는 말. 한 달 동안의 생활을 글로 써 내려가자니 이런 것들이 먼저 머리에 맴돈다.

한 달 동안 나는 꽤나 더위를 탔고 조금 심심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수월했던 듯하다. 산책을 나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것들 말이다. 반면 여기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항상 궁리해야 했다. 할 일을 찾으면 얼른 끝내자는 일념으로 일에 집중을 했고, 찾지 못했을 때는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이내 잠들고 말았다. 새삼스레 내 몸이 참 바쁘게 살아왔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갑자기 텅 비어버린 시간들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다.

## 개인 에세이 - 김강희 (2)

답답함도 느꼈다. 문화적 차이겠지만, 이 나라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우열을 두고자 함은 절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으로서 지금 나의 행동이 이 문화에서 적합한 것인가?' 하고 자기검열하는 순간들이 종종 생겼었다. 또한 언어에서도 답답함을 느꼈는데, 주된 원인은 크메르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다. 남은 4달 동안 부디 크메르어가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가능해지길 바란다(열심히 해야지!)

팀 생활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고, 몇 번씩 부딪히기는 하지만 소통을 멈추지는 않는다. 또한 천성(?)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이 많아서 팀원 한 명이 조금 힘들어해도 금방 관촬아지는 것 같다. 많이 많이 고마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맺은 인연을 남은 앞으로도 잘 기억나가고 싶다.



## Dara

'와 일이 커졌다...' 프놈펜 공항에 랜딩하기 직전 비행기 안에서 내가 한 말이다. 사실 사무국으로부터 캄보디아로 가게 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도, 한 달 동안 국내훈련을 받을 때에도, 인천 발 프놈펜 행 비행기를 탈 때조차도 내가 캄보디아로 간다는 것이 전혀 실감 나지 않았다. 하지만 늦은 밤, 불이 켜진 프놈펜 시내를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야 '아 내가 진짜 캄보디아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가장 처음으론 든 생각은 '아 덩다..'. 7월 말~8월 중순, 가장 더울 때의 포항 날씨를 겪는 것 같았다. 공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덱을 만나 우리가 5개월 동안 묵게 될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위해 잠시 미뤄두고 온 나의 대학생활, 가족 & 친구와의 만남 등이 머릿속을 스쳐가며 밤잠을 설치게 했다.

## 개인 에세이 - 이태호 (2)

라온아띠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나에게도 첫 달, 3월은 '적응'의 달이었다. 낯선 날씨, 낯선 생활패턴, 낯선 화장실 문화, 낯선 음식 등 나에게 모든 것이 낯설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선 난 이 모든 상황을 지금의 내 생활의 일부라 인식하고 인정하며 오롯이 이곳에서의 생활을 즐기게 되는 그 날까지 인내해야 했다. 하지만 이 생각도 곧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날부터 난 여기 생활에 온전히 날 내던졌다.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적응이 안 되는대로, 적응이 되는 부분은 그냥 적응이 되는 대로, 인위적으로 여기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보다는 지금 이 생활에 맞춰 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자 이곳에서의 생활이 비로소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한 낮의 더위는 한 밤의 서늘함으로 달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팀원들에 대한 설렘으로 달랬으며, 자발적인 불편함을 인내하는 나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 나를 성장시킬 수많은 생각들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빠르게 지나간 한 달이었다. 앞으로 남은 4개월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선 4월 한 달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한다면 일단은, 일단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 Arun

출국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이곳에 와서 사람들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나 고민을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공백에서 비롯되는 어색함이 없었다. 나는 크마에어도 매일 제자리 걸음이고 항상 물어주시는 말 몇 가지, “밥 먹었어?” “잘 지냈니?” “내일 보자”에 밖에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무언가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의욕을 가지고 공부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한편으로 현지 스태프들의 관심이 우리의 대학 전공으로 쓸릴 때도 있었다. 나는 이제 2학년을 마쳤을 뿐이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이곳에서 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그분들의 기대가 사실 부담스러웠다..

## 개인 에세이 - 차효림 (2)

하지만 지금은 내가 조금이라도 배운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학생인 내가 언제 이런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는 아직 맡은 적이 없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팀원들간의 관계에서는 같이 살기 때문에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혼자였다면 겪지 못했을 인생의 경험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은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팀원들과 함께하는 일이 하나의 과제인 것 같다. 매일 매 순간 팀원들에게 고마운 일들이 정말 많은데 정작 고맙다는 표현은 잘 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쉽다. 4월은 내가 이런 고마움을 느낄 때마다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와서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늘었다는 것이 좋다. 자연에서 새롭게 느끼는 것들, 내 생애 첫 별똥별과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자연들 등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이 생긴 기분이다. 자연 외에도 나를 22년간 당연하게 둘러싸던 것에서 벗어나니 당연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새로운 감수성을 가득 채워야겠다.



# Chenda

-전설의 쓰라이 누

“Do you know 쓰라이 누?” 캄보디아에 처음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을 꼽으라면 나는 저 문장을 들고 싶다. 그만큼 라온아띠 10기들은 활동을 잘 하고 떠났고, 그 중에 보람언니(이하 쓰라이 누)의 친화력은 정말 대단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팀은 처음에는 그 소식들을 기분 좋은 소식들로 들었지만, 계속해서 쓰라이 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떠났길래 저렇게 기억 속에 남게 된 걸까..?’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부대끼는 노력과 언어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 두 개 모두를 잘 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질투가 나기도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나의 3월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멀리 생각하자’ 하는 생각과 ‘이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5개월을 보내다 오면 어찌나,..?’ 하는 고민으로 가득 차 있던 달이었다.

## 개인 에세이 - 모예은 (2)

### -생활

아무런 기대도 하고 오지 않아서 인지(음식이 입에 맞을 거라는 생각이나 내가 견딜만한 벌레 수준이라던가 하는 기대들) 실제로 집에 도착하고 생활함에 있어서는 괜찮았다. 음식도 의외로 입맛에 잘 맞고 쥐도 천장에만 살고 있어서... 그리고 더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그늘도 많고(시원하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견딜 만은 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또, 소나기가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스콜성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소리를 듣고 비 내리는 장면을 보면 기분도 엄청 좋아져서 하루의 일이 잘 풀리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나의 캄보디아의 생활은 나름 풍족하고, 나름 행복하다.

### -언어, 수업

가장 신경 쓰이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언어였다. 개인적으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질문이나 자기소개, 수다까지 영어, 그리고 생전 처음 듣는 크메르어로 떨어야 하니 부담도 되고 답답함도 많이 느꼈다. 또, 그런 상황에서도 절박해 보이지 않는 나의 모순된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다.



## 개인 에세이 - 모예은 (3)

그리고 그런 내 수준에서 한국어와 영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럴만한 수준일까? 대학 진학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영어에 대한 부담감과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캄보디아에 와서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자칭하는 팀원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고, 혼자 기분이 다운되어 있다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운을 내게 된다. 오늘도 내일로 미뤄버린 공부이지만... 내일은 진짜...해야지.....

### -마무리

해외에 일주일 이상 나와본 경험이 없어서 나는 하루하루 나의 외국 체류 기록을 깨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소식이 참 궁금하고, 한국의 친구들이 궁금하고, 모두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 그러다 취업한 사람들의 소식, 장학금,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의 소식들을 들으면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영어공부도 '그래, 한국에 돌아가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며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또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미래로 도망치고 있다.

그래서 나는 5개월 동안의 목표를 '현재에 집중하기'로 정했다. 매일 미래를 위해 살고, 현재를 즐기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번 5개월은 철저히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고 싶다.

## Ponleu

인천공항에서의 오랜 기다림 끝에 캄보디아로 날라온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캄보디아 도착했을 때 "우와~"라는 감탄사를 여러 번 했었다. 까리타스 센터, 스텝들, 5개월간 지내게 될 숙소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나 자신이 너무 후진국이라 단정지었던 것 같아서 반성을 하기도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랬기에 시간도 빨리 지나갔던 것 같다. 한국어&영어수업, 캄보디아음식, 프놈펜나들이, 시하누크빌, 파고다 등 많은 곳들을 다녀왔지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사람인 것 같다.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바로 도와주는 현장스텝들, 언제나 웃으면서 인사하는 마을 사람들, 먼저 다가와 말 걸어주는 센터학생들, 수업시작하기 1시간 전에 와서 나를 부르는 아이들...



## 개인 에세이 - 오제준 (2)

윙크나 웃음, 눈짓 등으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현지어인 크메르어를 유창하게 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다가가기는 힘들겠다...하는 생각 때문에 먼저 잘 다가가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크메르어, 영어, 약간의 한국어 등을 섞어가면서 말을 거는데 일단 부대껴보는 자신감이 필요했던 것 같다.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마을아이들과 친해졌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아이들과 헤어질까 하는 아쉬움과 걱정이 든다. 다가올 이별을 사서 걱정하는 것보다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많은 추억들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더 수업준비를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지금 내 목표는 "잘 살다 가자!"이다. 캄보디아에 오기 전 내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다. 남은 4개월 동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항상 믿고 의지하는 팀원들과 함께 잘 즐기면서 잘 살다 갈 것이다.



3월 총평 및 피드백



한국에서  
내게 당연했던 것들  
대학, 한국어

날씨  
버틸만하다

언어의  
소통의 답답함

남는 여가시간  
약간의 게으름..?

파티, 돌잔치  
'흥'이 있는 나라

화장실  
다른 화장실 문화  
휴지를 안 쓴다.

음식(머흠)  
현지 음식 적응이 힘들다

프놈펜 나들이  
자유로움을 느끼다

시하누크빌  
해변, 수영, 해산물

팀 생활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

## 3월 총평 이후 새롭게 정한 규칙 😊

- ① 냉장고 안 식료품 리스트 작성 & 붙여놓기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돈도 아낄 수 있을 것!
- ② 각 단원에게 개인 식비를 준다.  
이 돈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팀원들끼리 함께 먹었으면 하는 것을 사는 데 쓴다.
  - 무엇을 사든 상관없음!
- ③ 크메르어 스터디를 함께 한다!
  - 주말에 합니다!



어쨌든 짜란! (감사합니다)

썸 크니어 카에 끄라오이 (다음 달에 만나요)

